

조선·해운업 올해 설비투자 -42%

산업은행 '설비투자' 전망... 지난해 3.1조서 1.8조로 1.3조 급감... 해운 시황 부진 등 영향

조선·해운업에 대한 올해 설비투자가 40% 이상 줄어든다. 7일 산업은행의 '2016년 설비투자 전망'에 따르면 해운업의 설비투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41.9%) 줄어든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올해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와 해운시황의 부진 및 회복이 지연되고, 상선부문의 해운업의 선박량 과잉 지속 등으로 대부분 선종에서 수주량 감소가 전망된다.

해양플랜트 역시 수주 정체가 예상된다.

업황 개선에도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산은은 보고서를 통해 유지 및 보수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생산능력 확충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는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제품생산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설비확장 투자의 영향으로 줄어든다.

유일하게 자동화 및 생력화, 에너지 및 환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2015년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철강 역시 큰 폭으로 투자가 줄어들면서 다음 구조조정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의 투자는 2015년 3조2000억원에서 올해 2조2000억원으로 1조원(31.3%) 적어진다.

수요산업 회복의 지연으로 수급은



LAN 환경에서도 기가 속도 KT는 LAN선 환경에서 거주하는 모든 고객에게 1Gbps 인터넷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2pairs LAN GiGA 인터넷'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되었지만 자동차 생산 증가율의 둔화와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철강은 대규모 투자가 종료된 시점"이라며 "업황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가 30% 이상 줄었다고 업황이 전년보다 30% 나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 장비가 3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12.5%)으로, 전기·가스가 23조5000억원에서 21조5000억원으로 2조원(8.5%)으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자동차와 석유정제, 식음료, 의약품 등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

업에 대한 투자는 늘어난다.

자동차의 경우 10조1000억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27.7%) 늘어난다.

석유·정제도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1000억원(57.9%), 식음료 2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7.7%) 많아진다. /인진수 기자

현대차, 해외에 버스 500대 공급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27인승 6,600만 달러 계약

현대자동차가 현대종합상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도로교통부에 27인승 대형버스 '에어로시티' 5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성사된 계약은 약 6,600만달러(780억원 상당) 규모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체결한 해외 버스 공급 계약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이는 쏘나타 최고급형(3,000만원)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2,600여대에 달하는 계약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내년 9월 수도 아쉬하바드에서 열리는 제5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Asian Indoor & Martial Arts Games)를 앞두고 노후 시내버스를 교체해 시내 대기환경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는 7월부터 버스생산을 시작해 내년 9월 대회 전까지 약 1년여에 걸쳐 투르크메니스탄 기후에 최적화된 '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공급한다.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부 관계자는 "아쉬하바드에서 현재 운행 중인 현대차 시내버스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의 우수성은 이미 증

명했으며, 이번 계약에서도 에어로시티의 향상된 상품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은 정부의 경제외교와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낸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우선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투 경제협력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현대차에 에어로시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해 논의하면서 계약체결이 가시화됐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시내버스 공급과 관련한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번에 정식 공급 계약에 이르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수요처가 많은 상용차 시장의 특성상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장기에 걸쳐 지속적인 거래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이 현대차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민간외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렌터카 사고도 '자기보험 처리' 가능

금감원,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개선방안 11월부터 시행

하반기부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기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해 렌터카를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본인인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물·대인·자기신체사고는 의무가입사항인데 반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렌터카이용자부터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싼 수수료를 받고 렌터카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 면책구'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일반대차)에 이어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대여받아 이용하는 운전자(보험대차)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라고 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는 11월께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터카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5월 수입차 판매 6% 증가

지난달 수입자동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가량 증가한 1만9000여대 판매되면서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1만9470대로 전년 동월(1만8386대) 대비 5.9%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9.1% 증가했다.

내수시장의 수입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중단으로 알려졌던 올해 초 부진했지만 인하 연장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신차 출시 및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잠시 추축했지만 지난달 또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올해 1~2월에 보인 두 자릿수의 감소세의 영향으로 1~5월 누적 등록대수는 9만3314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9만5557대)보다 2.3%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인진수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 확정

오늘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발표... 한은 대출금 담보 신용보증기금 통해 해결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식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 조율을 마치고 국책은행 실태 지원을 위한 핵심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8일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실행 대책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자본확충 TF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식을 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은행의 대출금 담보 설정 문제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자금을 대출하고, 기업이 다시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식으로 펀드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남아있다. 신보의 보증 책임 문제다.

신보가 자본확충펀드를 보증하려면 펀드 규모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 재원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정부와 '손실 최소화 원칙'은 깰 수 없

다는 한은은 그동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원 주체가 되길 꺼려왔는데 유 부총리의 입을 통해 최종 합의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당시에는 한은이 신보 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했다.

현재 국책은행에 투입해야 할 자금은 약 5조~15조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 운영 규모는 정부의 직접 출자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한은의 직접 출자,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진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